

2025년 4월 5주차 각 지역 소식



🌐샤먼

- ✔中 테무·쉬인, 25일부터 미국서 가격 올린다
- ✔날씨, 부두 혼잡 원인 스케줄 불안정, 2-3일 딜레이

🌐광저우

- ✔캔톤페어 2기 개막, 미국 대중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해외 바이어 수 전년 대비 20%증가

🌐청도

- ✔올해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6억 1천만위안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천진

- ✔대련, 체리 수출 성수기 맞아 4월 총 77차례 걸쳐 22톤 신선한 체리 수출
- ✔북경-동남아시아 수출입 규모 확대 1분기 수출입 규모 500억 RMB 초과

🌐태국

- ✔태국, 외국인 사업법 개정 추진...투자 유치 위한 규제 완화 나서
- ✔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예고
- ✔태국, 美관세 위협에 경기부양책 준비..."21조원 이상 필요"
- ✔미국 연방항공청, 태국항공 안전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공식 상향 미국 취항에 청신호

- ✔태국 북부 메홍손,산불로 초미세먼지 악화
- ✔태국-캄보디아, 교역 확대,국경 협력 강화
- ✔방콕시,내년부터 방콕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의무화
- ✔태국 과일의 한국 백화점 입점 추진,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시장 확대 기대
- ✔4 월 태국발 한국착-기항지 체선으로 태국발 스케줄 딜레이 심화

🌐동경

- ✔일본 첫 통합형 카지노 리조트 오사카 유메시마에서 착공,2030 년 가을 개장
- ✔28 년부터 비자 면제국 여행객 대상으로 입국 전 온라인신고·심사 제도인‘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입국 전 온라인으로 여행자 정보제출, 불법체류 우려 시 사전에 비자 취득 요구하는 방식

🌐하노이

- ✔베트남 공휴일 연휴 4/30(수)~5/04(일)
- ✔베트남 연휴 앞두고,하노이발 항공 수요 급증
- ✔한국,베트남산 냉압압연 제품에 최대 18.81%의 반덤핑 관세부과
- ✔효성화학,베트남 법인지분 49% SPC 에 매각..3799 억원 규모
- ✔SK 그룹,베트남 까나 LNG 발전소투자 40 억달러로 확대
- ✔GS25,베트남 하노이서 흥행...일 평균 매출 500 만원 넘어

🌐호치민

- ✔베트남,미국과 양자 무역협상 공식 개시(보편 관세 10%는 유지 중/미국의 상호관세가 90 일간유예)
- ✔베트남,맥주·주류 특소세 인상 1 년연기추진...27 년시행(주류세율은 현행 65%)
- ✔베트남 국가주석,라오스 국빈 방문...24~25 일
- ✔푸꾸옥공항 확장 승인,터미널·활주로 신설...2027 년 APEC 정상회의 대비
- ✔베트남,1 분기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세금 2.8 조동(1.1 억달러)징수...구글·틱톡 등
- ✔베트남,항공기 수입규제 대폭 완화...대외 관계 증진 목적

🌐대만

- ✔대만 정부,미국관세 피해 기업에 3 조 8 천억원 지원 추진
- ✔제주-대만 가오슝 노선 5 년만 재개,티웨이 주 4 회운항
- ✔대만발 한국향 선박 딜레이 매우 심각

🌐자카르타

- ✔화장품 수입 시 할랄인증 의무 26 년 10 월개시(인증취득 과정에 많은 시간 소요,현시점부터 준비해야 인증서

취득 가능)

- ✔150 억루피화 상당 불법 수입품 적발,대부분이 SNI(인니국가표준)미달제품,전자,섬유제품 다수(중국산 높음)
- ✔자카르타 주정부 26 일오후 8 시,1 시간동안 소등 행사(지구의 날 캠페인 일환)
- ✔인니루피화 약세 지속 전망(국가재정적자 확대,소비심리 위축,향후 경제 불확실성 대중 우려 심화)

🌐싱가포르

- ✔전자 기업들 美공장 기피,싱가포르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
- ✔싱가포르 조기 총선,5 월 3 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
- ✔싱가포르 항공, 한국 취항 50 주년

🌐말레이시아

- ✔팜오일 수요 증가.가격 경쟁력 갖춘 말레이시아산 팜오일 중국,인도 수요 증가 예상.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
- ✔브리즈번-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 11 월 29 일부 주 5 회재개
- ✔말레이시아 정부 미국,중국,EU 주요파트너와 균형 잡힌 무역 관계 유지.다자주의 중립외교정책 강조

🌐마닐라

- ✔CAO NO.02-2025 의거, 5/1 일자 수입 시 지불 세관비용 일부 인상 예정

🌐심천

- ✔中전자상거래 플랫폼, 단순 환불제도 폐지
- ✔국적선사 심천발 한국착 해상 운임 4 월말까지유지
- ✔리튬배터리/희토류 수출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충칭

- ✔中언론 "무비자 호재로 한중 관광 열기 '후끈'...양국 국민거리 좁혀져"

🌐부산

- ✔中서비스업 대외 개방 확대...美관세 충격 대응

▶주간 시황 요약

Container 임시 결항 확대, 북미항로 소폭 상승

Bulker 계절적 철광석 수요 증가 및 북·남미 곡물 수출 호황으로 상승

▶Container

	'25.4.25.	'25.4.18.	증감	
SCFI	1347.84	1370.58	▼ 22.7	
美서안	2,141	2,103	▲ 39	
美동안	3,257	3,251	▲ 6	
유럽	1,260	1,316	▼ 56	
지중해	2,129	2,161	▼ 32	
동남아	454	450	▲ 4	
중동	1,161	1,266	▼ 105	
호주	855	891	▼ 36	
남미	1,414	1,573	▼ 159	
日서안	316	316	-	
日동안	321	321	-	
한국	146	146	-	
동서Africa	3,749	3,853	▼ 103	
남Africa	2,043	2,076	▼ 33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종합 SCFI 2 주 연속 하락, 공급 조절 영향으로 북미 상승, 유럽은 하락

1. 운임 방어를 위한 선사 공급 조절 계속되며 북미 운임은 소폭 반등, 반면 유럽은 하락
2. 中선박의 美입항 수수료는 최초안에서 대폭 수정되며 中선사/조선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COSCO 는 현재 Ocean 의 9 개 美서비스 중 4 개를 운영 중, 3 월 북미 물동량의 17% 를 처리하며 시장 점유율 1 위. 한편, CMACGM 은 中선사의 동맹 탈퇴 계획은 없다고 밝힘
3.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규제 속에서도 MSC 는 LNG 이중연료 추진선 22,000TEU x 6 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

미주항로 美 동서안 강보합, 대규모 공급 조절 효과로 소폭 반등

1. 中→美 선적 약세가 계속되며 현재 북미항로 임시 결항은 팬데믹 초기를 상회, 4월 한 달간 최소 80 항차 결항 예상되며, ZIM, TSL은 최근 북미항로 2개 서비스의 운영 중단을 발표.
2. 글로벌 선사들의 공급 조절을 통한 운임 방어 노력은 5월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
3. LA 항 컨테이너 처리량은 상호관세 이후 선적된 화물이 도착하는 5월 초부터 급락할 것으로 예상. 전년 대비 19주차 -38.6%, 20주차 -43% 전망
4. S&P 글로벌은 美 GDP 성장 전망치를 '25, '26년 기준 1.9%에서 각각 1.3%, 1.5%로 하향 조정했으며,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50.8pt로 전월 대비 -11% 기록, 4개월 연속 하락

유럽항로 2주 연속 하락, 수급불균형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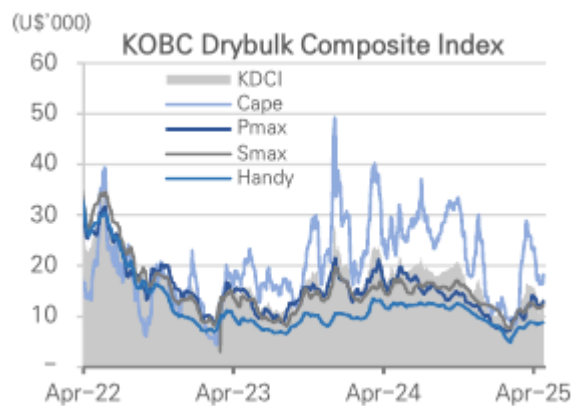
1. 북미항로 부진에 따른 공급량 증가. MSC의 신조 2척 투입 포함 전환 배치 증가세. 최근 북유럽 주간 공급량은 팬데믹 영향에 있던 '21년 11월(33.6만 TEU)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
2. 25.1분기 안트워프는 343만 TEU(+2.2%)를 처리, 로테르담 336만 TEU(+2.2%)를 제치고 유럽 최대항에 등극, 합병을 통한 확장 및 로테르담 정체에 따른 서비스 이탈(2개)이 주요인
3. 현재 로테르담은 평균 7.2일 대기, 야드 가동율 89%로 항만 혼잡 지속. 관세 유예 후 선적된 아시아발 화물이 본격 유입되는 6월에는 혼잡이 극심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연근해/기타 동남아 항로 보합, 4주 연속 상승

- 일본 골든위크 영향으로 일본착발 물동량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주 역내 항로에서는 에버그린, CMACGM 등의 항로 개설이 이어지는 등 아주 공급 확대 움직임 지속

▶ Bulker

		4/25	4/18	증감
KDCI		13,864	12,999	▲ 865
Cape	평균	18,251	16,393	▲ 1,858
	F/H	36,813	35,163	▲ 1,650
	T/A	14,000	12,488	▲ 1,512
	Pac RV	14,563	12,075	▲ 2,488
P'max	평균	12,946	12,205	▲ 741
	F/H	17,125	16,625	▲ 500
	T/A	10,700	9,613	▲ 1,087
	Pac RV	12,133	11,419	▲ 714
S'max	평균	12,096	11,827	▲ 269
	F/H	14,917	14,820	▲ 97
	T/A	13,767	13,360	▲ 407
	Pac RV	11,634	11,189	▲ 445



Cape 철강·철광석 수요 서서히 증가 중

1. 계속되는 미·중 무역 갈등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강재 소비 회복세가 철광석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상승세
2. 중국 항만 내 철광석 재고는 전주 대비 280 만 톤이 감소하고 주요 철강재(철근, 열연 등) 재고는 약 900 만 톤으로 4 주 연속 감소하는 등 소비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3. 또한 3 월 초부터 철강제품 수출이 4 월 상반기 중 hot metal* 생산이 증가 * 조강 전 용광로에서 생산된 액체 상태의 선철
4. 트럼프 美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 관세율에 대해 2~3 주 안에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정책 방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
5. 4/21 중국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발표. 이는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이었으며 1 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중국 당국이 유동성 공급보다는 환율 방어 및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
6.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가 커짐으로써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Panamax 북·남미 곡물 수출 호황

1. 지속적인 USG, 남미의 곡물 수출 호조가 아시아 석탄 시장의 침체를 상쇄하며 강세 지속
2. 4/17 까지의 주간 미국의 곡물 선적량은 전주 대비 감소하였지만 직전 4 주 평균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곡물 선적량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3. 브라질은 4 월까지 1,468 만 톤의 대두를 수출하여 사상 최대 수준의 수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옥수수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 물류 병목 현상이 감소하여 운송이 정상화된 것이 수출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
4. 4/28 실시된 중국 수입 대두 비축분* 경매를 실시한 결과 공급량 624,000 톤 중낙찰량은 107,357 톤으로 낙찰률 17.2% 기록. 이 수치는 최근 추세('25 년 평균 낙찰률 31.08%)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이는 중국의 대두 수요가 둔화되었음을 의미 * 정부가 곡물 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해 두는 공공재고
5. 중국은 자국산 석탄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 석탄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항만과 발전소의 재고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추가 구매 필요성이 매우 낮은 상태
6. 인도네시아 석탄 로열티 상승에 대한 부담에도 남미 곡물 수출 호조로 상승세 유지될 것

Supramax 인디아, 세이프가드 부과 발표

1. 활동성이 약한 가운데 북·남미 곡물 수출 호조와 선박 공급 감소가 맞물리며 상승세
2. 대서양은 부활절 연휴 이후 시장 활동성이 다소 부족한 가운데 지중해, 남미의 공급 우위 구조 지속으로 약보합세
3. 태평양은 남아공발 인디아향 석탄 화물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선박 공급이 다소 감소하면서 상승세
4. 4/21 인디아 정부는 200 일간 중국과 베트남의 열연강판류 수입에 대해 12%
5.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발표. 특정 수입품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일시적 수입 제한 조치로, 인디아 내 철강 생산 증가를 기대하며 이는 곧 남아공산 열탄의 수요 확대 가능성을 시사

상기 작성된 자료의 중 일부는 해양진흥공사의 공식 패널로 참여 된 기업으로써 해당 부서의 승인 후 배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원 상무 / Kai Kim / Managing Director



07642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95 (내발산동, 맥익스프레스 빌딩)

Tel : +82-2-2661-3401(ext.704)

Fax : +82-2-2661-3403

Mobile : +82-10-5139-9985

E-mail : kai@imcexpress.co.kr

URL : www.mcexpress.co.kr